



허정림 | 환경공학박사/
한국환경교육학회 총무이사
(jr529@naver.com)

하천이야기 5

시가 흐르는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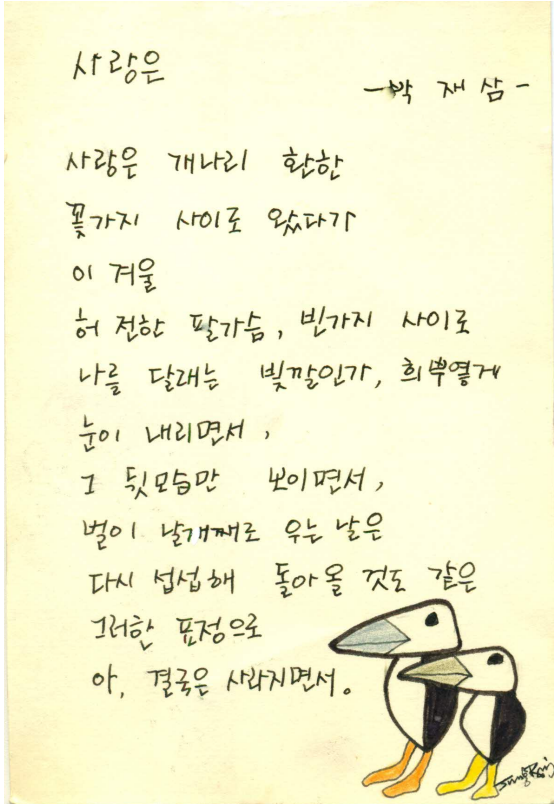
시인 박국양은 '사람은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매일 시를 쓰는지도 모른다'라고 시를 쓰는 이유를 말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시를 쓰는 이유만큼이나, 유독 많이 등장하는 강에 관한 시들을 보면서 왜 강을 보면 사람들은 시를 쓰고 싶어하는지가 궁금했다. 새삼스런 불혹의 나이를 지난 사람의 주책없는 호기심이어도 어쩔 수 없다. 옛 사람들의 정취를 느끼는 시에는 늘 강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혹은 세상을 뒤로 하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윤택하던 시들을 봐도 강은 참으로 신비로운 시의 영감을 전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오월은 눈부신 계절의 여왕이라며 찬미하던 찬란한 햇살은 온데 없이 하루 종일 장맛비처럼 내린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오월을 보낸 나의 기억에도 비가 온 생일을 맞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게다가 전공밥 먹은 티가 들고 나서 드디어 기후변화의 바람이 나의 생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싶어지는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오는 오월은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인지 웬지 비로 인해 센티해진 마음과 더불어 강과 시의 연관성이 궁금하고, 또 그래서 오늘은 웬지 시 한수 읽어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다. 아니 시 한 수 지어서 그동안 소원했던 지인들 몇몇 분에게 시를 적어 강물에 나뭇잎 편지를 띄우듯 마음을 담아 보내고 싶어진다.

중학교 시절의 나는, 꿈에도 공학박사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다. 늘 소설가나 시인이 되겠다며 세계명작과 한국단편집을 매일 밥처럼 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좋아하고, 용돈을 털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당시 연극과 뮤지컬을 보는 것도 무대 뒤의 배우들의 사인을 받아 모을 만큼 광팬이었다. 아마도 소설가나 시인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때의 정서적 바탕이 오늘 이 원고를 쓰면서 예전의 꿈을 작게나마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고 싶은 걸까? 하긴 뭐든 이런 날씨에는 연관 지어 확대해석하는 과대망상에 잠깐이라도 젖어 과거의 아름답던 청춘의 유년기를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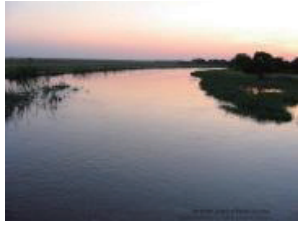
또 하나 기억나는 추억거리 중의 하나는 좋은 친구나 소설 속 명인들을 이쁜 엽서에 그림을 그려 적어 두거나 외우는 일이었다. 누구나 한번쯤 그 시절을 살았던 학생들은 해 보았던 일이었기도 했다. 때로는 그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엽서를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삼십년의 세월을 돌아 지난달에 미국 시카고에서 나를 찾아와 건넌 엽서 한 장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시와 이쁜 그림이 그려있었다. 멀리서 옛 청춘의 추억을 전달하고 싶다며 와 준 친구만큼이나 한 장의 엽서는 참으로 고왔던 나의 옛 모습을 보는 듯 하여 반갑고 아름다웠다. 그때 그 엽서 속의 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한 마음을 읽는다면, 그 친구와 나는 어떤 운명의 고리로 연결되었을까? 새삼 상상의 나라가 펼쳐진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강을 노래한 시가 많을까? 왜! 사람들은 강을 통해 마음을 그렸을까? 시를 좋아하던 그때 가장 내 인생의 좌우명에 영향을 미친 구절 중의 하나는 헤르만 헷세의 싯달타 중의 한 구절이다.

‘강은 고요하다. 그러나 그강물 속은 언제나 흐르고 있다’

그 당시 나는 이 말의 뜻을 중학생으로서 이해했다기보다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고 나서야 느끼게 된 듯 하다. 사람은 강처럼 한결같이 흐르고 잔잔한 물결처럼 살아가되 그 내면의 열정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좌우명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살지 않겠다!’이다. 늘 같아 보이는 하루하루 일지언정 강물처럼 늘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 흐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리라는 나름의 다짐이요, 세상의 세파를 견디는 나만의 방법이며 위안이기도 하다.



세월의 강물
 -장슬로우-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마라
 다친 달팽이를 보거든 도우려 들지 마라
 그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당신의 도움으로 그를 화나게 하거나
 상심하게 만들 것이다

하늘의 여러 시렁 가운데서
 제 자리를 떠난 별을 보게 되어도
 별에게 충고하고 싶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아라
 강물은 나름 데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고요한 강가에 가지 않아도 이 한 장의 고요함이 흐르는 강을 보고 있으니 ‘장 슬로우’의 시 ‘세월의 강물’은 운치가 더해져서 물어난다. 그가 노래한 세월을 흐르는 강은 인생의 지혜를 보여주는 듯 하다. 인생에서 누가 더 빨리 가라하고 선불리 도움을 주면서 결코 한 사람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상심을 줄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관조하는 삶의 평정심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우리네 인생 하나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준다. 강을 보면서 세월을 노래 한 시인은 강에서 우리 인생을 보았을 것이기에 이렇게 강가를 번지는 잔잔한 여울처럼 담담하면서도 마음을 적시는 시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강으로 인생을 비유했듯, 때로는 강물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지혜를 강물의 이름으로 알려 주기도 한다. 강

의 특성을 강이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느낌으로 인생에서의 태도를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강물처럼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강물

-이원호-

강물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누가 길을 막으면

돌아서 가고

그러면서도

앞서지 않고

차례로 간다

강물은 강물끼리

서로 손잡고 간다

또한 이 시는 고전 속의 성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고전 인문학을 통해서 옛사람의 사람 사는 지혜를 되새기며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춘추시대의 난세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지혜가 널리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때에 그 역시 어김없이 사람이 사는 지혜로운 방법을 숲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산의 높이 우뚝 선 소나무는 언젠가는 바람이 시샘을 하여 쓰러뜨린다. 그러나 숲 속에 나무들과 함께 어우러져 튼실한 나무로 살아가라'

산의 우뚝 솟은 돋보이는 나무는 아닐지언정, 숲 속의 나무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 엿볼 수 있다. 누구나 앞서가고 돋보이고자 경쟁사회에 내몰리고 최고가 아니면 폄하되는 현대의 우리에게서는 경종을 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숲 속의 나무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높이 솟은 나무처럼 사는 인생의 더 많은 것

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하면서 질서와 견제를 받는 것 또한 경계하고 있다.

한편 춘추시대를 살았던 맹자는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말하였다. 공자와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로 중국의 역사상 가장 어지러운 세상이었다. 권력이 주름을 잡던 혼란기의 어려운 난세에 시대를 가르는 성현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치일 것이다. 흔히들 공자와 맹자는 같은 시대 사람이고 공자의 제자가 맹자인 줄 안다. 그러나 두 성현은 성품도, 살았던 시대도 달랐다.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으로 성품이 어질고 소극적이고 운순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인(仁)사상이었나 보다. 그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증자이고 증자의 제자가 자사인데 자사의 제자가 바로 맹자이다. 맹자는 공자와 달리 전국시대의 사람으로 성품 또한 공자와 달리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행동과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는 공자의 인(仁)사상과 더불어 접목한 의(義)사상을 펼쳤다.

맹자는 공자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또한 춘추시대보다 전국시대는 더욱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장 평온한 시절을 구가했던 주나라를 그리워했다. 주나라는 중국 역사상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백성들의 삶이 평화로웠던 시절이었으나, 그 뒤의 중국역사는 권력싸움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격동의 시대가 열렸다. 결국 어려운 시기일수록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회귀의식이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주나라는 백성들이 바라는 '이상향의 국가'로 그리워하는 이가 늘어만 갔다.

이에 맹자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심정을 심분 이해했지만, 과거에 얽매어 현재의 삶을 어떤 노력도 없이 발전적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해 했다.

그리하여 그는 “彼一時, 此一時也”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과거의 태평성대를 그리워하지만 말고, 지금의 시대를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난세를 극복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맹자는 혹

시나 모를 자가당착을 우려하고 백성을 가여히 여긴 심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던 것이다. 결국 이상세계를 동경하기보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구가하자는 의미였다.

〈하늘 아래 변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계절에 따라 산천초목이 바뀌어 계절에 맞게 적응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수확을 준다. 변화가 없다면 세상은 지루하기 그지없다.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이치이다.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변한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제일 변하기 쉽다. 그래서 인지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한다. 사람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들로 변화를 시도한다. 처음부터 한 가지 생각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기란 세상의 뒷모습만 쫓아가는 사람이 될 뿐이다.

맹자 또한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한 것은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결국 세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의 변화와 기호에 맞추고 더 나아가 미리 예견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 기업경영자는 항상 새로운 사고를 지녀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꺾하는 사람은 경영자 뿐 아닌 조직 속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소나무와 전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혹시 같은 나무인데 헛갈려 하지는 않은지? 그러나 분명 두 나무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전나무는 곧게 쭉 뻗은 나무이고 소나무는 나뭇잎의 굴곡을 보이며 멋스런 나무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이 두 나무가 섞여 숲 속에서 자라면서 전나무 속의 소나무는 마치 전나무인냥, 쭉 뻗은 자태로 당당히 전나무처럼 꽃잎이 허리를 펴고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

사람 사는 세상도 그러하면 좋겠다. 굴곡진 삶과 왜곡됨 없이 전나무와 같은 사람이 많아서 주변의 나뭇잎의 사연이 있다면, 소나무처럼 굽이굽이 비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마음자리만큼은 편견 없고 꼬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미래의 비전을 꿈꾸면서 걸어가면 좋겠다. 직장에서도 아마도 그러한 소나무와 전나무의 유형의 동료와 상사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이 시 한 수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나뭇잎의 울퉁고 행복하게 나를 곧추세울 수 있었

음 한다.

강물처럼

왜 강물인 줄 아니?

흐르기 때문이래

고여 있고만 싶다면

강물이 될 수 없는 거래

흐르고 흘러서

내게로 오고

네게로 가고

바다까지 가는 거래

거기엔 고래가 산다잖아

강에선 볼 수 없는

글썸 잡채만 하데

너도 흘러 본 적 있니?

음음.....

함께 울고

도와 주고

니뉘 주고

이런 게 흐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가? 너를 향해 또는 나를 향해서 어제든 오늘도 흐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일도 흐를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강물에 물수제비를 띄우듯, 잔잔한 질문을 던져보자. 어쩌면 세상을 나가는 고래를 만나러 가기가 두려워서 게을러서 머물러 있거나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강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누군

-현경마-

가와 함께 울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
니었나 한번 쯤 뒤돌아보자. 과연 그렇게 강물처럼 살아 왔는
지 나의 마음에 잔잔히 여울져 오는 과문의 언저리를 살펴보
자. 그리고 마치 물안개가 강기슭에 피어오르듯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참 나'를 찾는 열정의 향 한 자루를 피워 올리자.

참으로 아름다운,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경쟁이란 것이, 현대인의 과
도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잃고 남을 누르
고 내가 이기는 파괴의 단어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
다. 상대를 향한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연음
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강처럼 함께 울고 도와주
고 손잡고 흘러가야 한다. 그래야만 큰 세상의 고래를 만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압록강에서

- 신경림 -

강은 가르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을 가르지 않고
마을과 마을을 가르지 않는다
제 몸 위에 작은 나무토막이며
쪽배를 띄워 서로 뒤섞이게 하고
도움을 주고 시련을 주면서
다른 마음 다른 말을 가지고도
어울러 사는 법을 가르친다
건너 마을을 남의 나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게
버려 두지 않는다
한 물을 마시고 한 물 속에 뒹굴며
이웃으로 살게 한다.

강은 막지 않는다
건너서 이웃 땅으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다
짐짓 몸을 낮추어 쉽게 건너게도 하고
몸 위로 높이 칠길이며 다리를 놓아
꿈 많은 사람의 앞길을 가려도 준다
그래서 제가 사는 땅이 좁다는 사람은
가치를 타고 멀리 가서 꿈을 이루고
척박한 땅 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강 건너에 농막을 짓고 오가며
농사를 짓다가, 아예
농막을 초가로 바꾸고
다시 기와집으로 바꾸어,
새 타전으로 눌러 앉기도 한다.

강은 뿌리치지 않는다
전쟁과 분단으로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제 고장 사람들이
뒤늦게 찾아와 바라보는
아픔과 회한의 눈물 젖은 눈길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 조상들이 쌓은 성이며 저지를
폐허로 버려 둔 채
탕아처럼 떠돌다 돌아온
메마른 그 손길을 따듯이 잡아 준다
조상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수없이 건너가고 건너온
이 강을 잊지 말란다.

강은 열어 준다, 대륙으로
세계로 가는 길을,
분단과 전쟁이 만든 상처를
제 몸으로 말끔히 씻어 내면서,

강은 보여준다.

평화롭게 사는 것의 아름다움을,

어두웠던 지난 날들을

제 몸 속에 깊이 묻으면서.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시인 신경림은 강을 단박에 철학자요, 스승이요, 어머니로 만든다.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고 노래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강은 회화와 사랑과 역사가 흐르는 강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을 이야기 하고 있다. 어머니처럼 늘 포용해 주는 강은 또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가 노래한 강을 시를 보면서 나는 과연 강처럼 품어 주고 있는 지혜로운 어머니였는지 자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된다.

여전히 '강이 왜 시와 만나게 되는 것인지' 하는 과학적인 의미를 규명할 재주는 내게 없다. 그러나 강을 노래한 시인의 눈을 통해서 강처럼 살아가라는 인생의 충고를 귀담아 귀 기울이고 싶어진다. 이 순간에도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유유히 자신의 길을 흐르고 있는 강은, 분명 우리에게 소리 없는 말을 건네고 있는지도 모른다.

파도치는 바다의 위력 앞에서, 요동치는 심해 속 질푸른 심연의 수수께끼조차도, 강물이 없다면 존재하지 못하기에 새삼 강의 지혜에 위대함을 느낀다. 강처럼 흐르며 세상을 담담히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온 초라하고 보잘 것 없이 느껴져 온 내 부모의 인생도 새삼 가치롭고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무엇보다 늘 채워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진정한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갈구로 인해 고갈되어 가던 내 인생도 그 나름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따스해지고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마치 강가에 여울져 비취우는 노을에 물 든 강처럼 말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림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모든 사회가 사람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 수영장의 레인은 '상, 중, 하'로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수영장에 가서 과연 나는 어떤 정도인지 판단하기 난감한 경험을 해보직하다. 그리고 왠지 못하면 민폐가 되고 또는 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기 때문에 중이나 상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한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의 삶처럼 그렇다. 그러나 대만의 수영장은 '쾌속'과 '만족'이라고 쓰여 있는 두 개의 레인만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빨리 가고 싶은지, 혹은 만족하는 정도로 수영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가 생각하게 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듯, 또한 인생은 만족한 삶 속에서 쾌속으로 가는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비록 '쾌속'의 삶은 아닐지언정 우리의 인생은 '만족'의 레인에서 당당히 강처럼 흘러가야 한다. 🌐

참고문헌

천위(2007), 맹자의 경영학, 아리센.
그림자료 -네이버 이미지 파일 중.